

한국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노인의 노후 부양가치관을 중심으로 -

The Factors Related To Parent-Adult Child Coresidence of Korean Elderly
- Focused on the Value of Elder Care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대학원생 박현정
부교수 최혜경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Graduate student : Park, Hyunjung

Associate Professor : Choi, Hyekeyo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ose factors which are related to parent-adult child coresidence of Korean elderly. The data of 2,464 elderly over 65 from 『National survey of elderly's life and welfare desires in 1998』 collected by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lderly who live with their children were different from those who live independently from their children i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sidential area, economic or physical abilities, and the value of elder care. Second, residential area, economic abilities, and the value of elder care were found to have an influence on the parent-adult child coresidence among Korean elderly. Third, the determinants of the parent-adult child coresidence for the elderly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value of elder care.

◆ key word: 자녀와의 동거여부, 거주지역, 자립능력, 부양가치관

I. 서론

현대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가족은 많은 구조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중 노인들의 가구구성 형태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5)의 조사에서는 79.5%의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0년대에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3)의 조사결과에서 44.4%의 노인만이 자녀들과 동거하고 있어서 80년대에 비해 동거율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노인 단독가구는 증가해 왔는데, 1998년 전체 가구의 약 45%가 노인 1인 혹은 노인부부가구(통계청, 1998), 이러한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은 1985년의 20%(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1995년의 24.6%(통계청, 1995)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거주형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노인의 거주형태를 변화시킨 요인들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한 편이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에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국내에서 소개되었으나, 이들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다(유성호, 1993; 이가옥 등, 1994).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노부모 부양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의식이 서구사회에 비해 매우 높고 그러한 의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강한 경향이 있다(서병숙·이신숙, 1991; 손정구, 1998). 따라서 미국의 문화적 상황을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노인의 거주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기보다는 연구자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1-2가지 특성만을 고려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있었다(오찬옥·이연숙, 1992). 이 경우 그 변수의 영향력을 명확히 밝혀주는 것은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된다.

셋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인해 수도권이나 농촌의 일부지역에 국한된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한국노인 모두에게 일반화시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한경혜, 1996).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들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전국 규모의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한국노인들의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인의 노후 부양가치관이 다른 요인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최근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원인을 설명하는 몇 가지 견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거주지역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원인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젊은이들의 향도이농 현상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유성호, 1996). 일자리를 찾아 농촌 젊은이들이 점차 도시로 이동하게 되면서 농촌지역에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졌고, 이로 인해 전체 노인인구 중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 농촌은 최근 확대가족의 비율과 평균가구원의 수가 감소하고, 아울러 가족주기상 쇠퇴기에 속하는 가족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하였다(한경혜, 1996). 이가옥 등(1994)이 전국 노인을 대상으로 시부(도시)와 군부(농촌)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군부에 사는 노인들이 시부에 사는 노인들에 비하여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주지역이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쳐 도시보다 농촌에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경제적·신체적 자립능력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하게 된 원인을 노인의 경제적·신체적 자립능력의 증가로 설명하려는 견해가 있다.

우선, 과거에 비해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보장 및 연금제도가 확산되는 등 노인들의 경제력이 향상되었다(Ross, Danziger, & Smolensky, 1987). 그러므로 더 이상 다른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노인들의 독립적인 가구가 증가하였다고 보는 것이다(Holden, 1988). 그러나, 국내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오히려 생활수준이 낮은 노인들이 노인단독 세대를 이루는 경향이 많다고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명희 등(1997)이 노인단독가구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조사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월수입이 4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자녀와 별거하고 있는 노인가구의 경제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경제적 자립능력이 적은 노인들이 오히려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은 빈곤층의 경우 노부모 부양이 어렵기 때문에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들이 많고, 취약한 경제력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 자녀들에게 외면당한 노인들이 공적부조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신체적으로 기능적인 노인은 독립적인 주거를 선택하여 자녀와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Wolf & Soldo, 1988), 신체적으로 취약하면 자녀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Lee & Dwyer, 1996). 그런데 현대 노인들은 과거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신체적 기능도 향상되어(박은숙 등, 1998),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거주형태를 선택하는 노인들의 비율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일상생활 활동능력(ADL)이나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능력(IADL) 등을 통해 노인의 신체적 자립능력을 측정된 국내외의 연구들은(Sarwari, Fredman, Langenberg, & Magaziner, 1998; 김경혜, 1998)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에 비해서 혼자 살거나 노인부부만 사는 노인들이 신체적 기능이 더 좋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김혜연·김성희(1999)가 노인의 부양유형 선호에 관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모든 요인에 문

제가 없다면 가장 이상적인 부양유형으로 개인부양을 선호하면서도 노인의 절반 이상이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부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이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였다.

노후 부양가치관 노인들의 거주형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원인을 사회적 규범, 즉 가치관의 변화로 설명하려는 견해가 있다. 노인들이 점차 노후의 독립적인 삶에 가치를 두게 되었고, 따라서 독립적인 가구형태를 더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Beland(1987)의 조사에서도 현재 부부끼리만 살고 있는 노인 중에 앞으로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한 노인은 2%에 불과하였고, 88%가 현재 상태에 만족한다고 하여 독립적인 가구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독립적인 가치관을 가진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와 별거하여 혼자 사는 노인들이 증가한다는 견해이다.

최근 한국인들의 노후보장에 대한 기대는 자녀들에 의한 부양에서 저축이나 연금, 또는 사회보장을 통한 자기부양의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이가옥 등, 1994). 이러한 부양가치관은 노인의 실제 자녀와의 동거여부와 관련이 있어서 이희조(1996)의 노인의 부양의식에 대한 연구를 보면, 자녀동거노인이 동거에 긍정적인 반면, 별거노인은 자녀로부터 독립하여 사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부양에 대한 기대를 조사한 손정구(1998)의 연구에 의하면 동거노인이 별거노인에 비해 자신의 노후를 자녀가 부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경신(1997)도 확대가족의 노인이 핵가족의 노인보다 더 전통적인 부양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김경혜(1998)와 유성호(1996)의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별거를 희망하는 노인일수록 실제로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 자신의 부양에 대한 선호도가 실제 거주형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2. 노후 부양가치관과 다른 요인들 간의 관련성

자녀와의 동거여부 등 노인의 거주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가족적인 과정(familial process)'으로서, 노인의 거주형태는 이들 요인들 중 어느 한가지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요인들이 관련성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인간에게 내면화된 가치관이나 규범의식은 인간의 행동을 좌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신수진, 1993) 가치관과 다른 요인들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전반적으로 노부모 부양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의식이 높고(김송애·조병은, 1991; 한은주·최배영, 1997), 그러한 의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김경신, 1997). 이렇듯 노후에 자녀가 자신을 부양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서구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으로, 이러한 부양가치관은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노후 부양책임에 대한 가치관은 노인의 거주지역이나 경제적 능력과 관계가 있다. 손정구(1998)의 연구에서는 농촌노인이 도시노인보다 부양책임이 자녀에게 있다고 하여 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속하는 노인들의 가치관이 가장 독립적이고 하류층의 노인들이 가장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부양책임이 자녀 혹은 장남에게 있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송애·조병은 1991; 한은주·최배영, 1997).

이처럼 가치관은 다른 여러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노인의 부양가치관과 다른 요인들간의 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우선, 사회인구학적 특성, 거주지역, 경제적·신체적 자립능력 및 노후 부양가치관에 있어서 자녀동거노인과 별거노인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후, 둘째, 노인의 거주지역, 경제적·신체적 자립능력, 노후 부양가치관이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셋째,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노후 부양가치관이 거주지역이나 경제적·신체적 자립능력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1995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 중 157개 표본조사지역을 추출하여 1998년 4월 13일부터 5월 31일(49일) 기간 중 9,355가구의 가구조사와 65세 이상 노인 2,535명의 개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부문의 조사자료만을 이용하였다. 65세 이상 노인 2,535명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무자녀 노인과 응답이 부실한 91명을 제외하고 총 2,464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연구대상 중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1134명(46%), 별거하는 노인은 1330명(54%)으로, 별거하는 노인이 약간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들은 연구결과에서 자녀동거노인과 별거노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표 1〉참조).

2. 측정도구

'자녀와의 동거여부'는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을 1, 동거하는 노인을 0으로 가변수화 하였다. '거주지역'은 조사구 번호를 통해 거주지역을 시부와 군부로

나누어 시부(도시)를 1, 군부(농촌)를 0으로 가변수화 하였다. 결혼상태는 조사 당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을 1, 사별, 이혼, 별거 등으로 동거하지 않는 노인은 0으로 가변수화 하였다.

경제적 자립능력은 자립적 수입원의 여부, 총수입, 주관적 경제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자립적 수입원의 여부는 '주택/부동산 소유여부', '근로소득 유무', '재산소득 유무', '기타보조 유무'를 포함시켜 각각의 수입원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가변수화 하였다. 특히 재산소득의 유무는 이익배당(저축, 증권 등의 이자소득), 부동산·집세,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중 1개 이상 있으면 1, 1개도 없으면 0으로 가변수화 하였다. 기타보조는 국가보조(생활보호, 노령수당 등), 사회단체나 기관, 친척으로부터의 보조 중 1개 이상 있으면 1, 1개도 없으면 0으로 가변수화 하였고, 그 외에 '비동거자녀보조 유무'를 포함시켰다. 또한 모든 수입원으로부터의 수입액을 더한 '총수입'을 포함하였으며, 노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경제수준'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의 신체적 자립능력은 6개의 일상생활 활동능력(ADL) 문항과 4개의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능력(IADL)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10개 문항 중 다중공선성이 있는 문항을 제외한 5문항(목욕, 식사, 앉거나 일어나기, 전화 걸기, 버스나 전철 혼자 타기)의 점수를 더하여 사용하였다. '전혀 어렵지 않다(1점)'에서 '전혀 할 수 없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총점의 범위는 5점에서 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기능이 나쁜 것을 의미한다. 내적 일관성으로 측정한 Chronbach's Alpha 신뢰도는 .77이었다.

노인의 부양가치관은 "노부모님은 누가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전통적 부양가치관을 반영하는 '장남'과 '아들 중 아무나'라고 응답한 노인들과, '딸'과 '형편되는 자녀 아무나'라고 응답한 노인들, 그리고 '노부부끼리 따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노인들의 3집단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SPSS for Windows 9.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고, 연구문제에 따라서 교차분석, t검정, 일원변량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자녀동거노인과 별거노인 비교

자녀동거노인과 별거노인을 비교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두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하면, 자녀수와 아들수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별거노인이 대체로 높았고, 자녀동거노인이 별거노인에 비해 여자노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평균적으로 동거노인이 별거노인에 비해 더 많았으며, 동거노인이 별거노인에 비해서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관심변인인 거주지역과 경제적·신체적 자립능력, 그리고 노후 부양가치관에 대해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거주지역에서는 별거노인이 동거노인보다 군부에 사는 비율이 더 높았고, 경제적 자립능력 중 총소득은 동거노인 보다 별거노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경제수준도 별거노인이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거노인에 비해 별거노인이 주택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있는 비율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나 사회단체, 친척으로부터의 기타보조에 있어서는 별거노인이 동거노인에 비해서 보조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비동거자녀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도 동거노인에 비해서 더 많았다. 즉, 별거노인이 동거노인보다 경제적 자립능력을 더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체적 자립능력에 있어서는 동거노인이 별거노

〈표 1〉 자녀 동거노인과 별거노인 비교

변 인	동 거 노 인 (N=1134)	별 거 노 인 (N=1330)	x ² or t
	빈도(%) / 평균	빈도(%) / 평균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자	358(31.6)	586(44.1)	40.41***
여자	776(68.4)	744(55.9)	
연령	73.64	71.79	7.50***
교육수준			
무학	695(61.3)	704(53.0)	
국졸 이하	295(26.0)	416(31.3)	
중졸 이하	67(5.9)	88(6.6)	18.64***
고졸 이하	45(4.0)	78(5.9)	
전문대졸 이상	32(2.8)	43(3.2)	
결혼상태			
배우자와 동거	438(38.6)	840(63.2)	147.57***
배우자와 비동거	696(61.4)	490(36.8)	
자녀수(아들수)	4.89(2.50)	4.83(2.42)	0.81(1.57)
아들 유무			
있다	1102(97.2)	1265(95.1)	
없다	32(2.8)	65(4.9)	6.90**
거주지역			
시부	753(66.4)	749(56.3)	26.17***
군부	381(33.6)	581(43.7)	
경제적 능력			
총소득(만원)	17.33	30.00	6.99***
주관적 경제수준	3.46	3.63	4.23***
주택/부동산 소유			
소유	182(16.0)	404(30.4)	69.31***
비소유	952(84.0)	926(69.6)	
근로소득 유무			
있다	247(21.8)	714(53.7)	261.87***
없다	887(78.2)	616(46.3)	
재산소득 유무			
있다	188(16.6)	360(27.1)	38.94***
없다	946(83.4)	970(72.9)	
기타보조 유무			
있다	52(4.6)	129(9.7)	23.52***
없다	1082(95.4)	1201(90.3)	
비동거자녀보조유무			
있다	730(64.4)	952(71.6)	14.67***
없다	404(35.6)	378(28.4)	
신체적 능력			
일상생활 활동능력	7.61	6.70	7.36***
노부모 부양책임			
아들	618(60.4)	746(58.9)	
자녀	328(32.1)	260(20.5)	95.12***
노부부끼리	77(7.5)	261(20.6)	

* p<.05, ** p<.01, *** p<.001
(무응답으로 인해 합계가 다를 수 있음)

인에 비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부양가치관을 살펴보면, 노부모 부양책임이 아들에게 있다고 한 비율은 두 집단이 거의 비슷했으며, 자녀에게 있다고 한 비율은 동거노인이 약간 높았으나, 노부부끼리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비율은 별거노인이 동거노인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별거노인의 경우도 부양책임이 아들에게 있다는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별거노인의 경우도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관이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녀동거노인과 별거노인이 거주지역, 경제적·신체적 자립능력 및 노후 부양가치관에 있어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이러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거주지역, 경제적·신체적 자립능력 및 노후 부양가치관이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미치는 영향

거주지역, 경제적·신체적 자립능력 및 노후 부양가치관이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종속변수인 동거여부를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를 1, 동거하는 경우를 0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2>에는 로짓계수¹⁾와 계수의 지수값인 Odds비²⁾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총소득과 일상생활 활동능력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은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시부에 사는 노인이 군부에 사는 노인에

비해서 자녀와 별거할 확률(Odds)³⁾이 0.7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부에 사는 노인이 자녀와 별거할 확률은 군부에 사는 노인이 자녀와 별거할 확률의 74% 밖에 되지 않으므로, 군부에 사는 노인이 시부에 사는 노인보다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1.35배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노인의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는 총소득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적 경제수준이 1점 높아질수록 자녀와 별거할 확률은 1.26배 높아지고, 주택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1.73배 높았다. 또한,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에 비해서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각각 3.93배, 1.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기타보조와 비동거자녀보조가 있는 노인은 없는 노인에 비해서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각각 2.76배, 2.20배 더 높았다.

노부모 부양책임에 있어서는 '노부부끼리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노인들이 '아들이 모셔야 한다'는 노인에 비해서는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2.43배 더 높고, '자녀가 모셔야 한다'고 한 사람에 비해서는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에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노인이 동거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서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1.70배 더 높았으며, 아들이 없는 노인이 있는 노인에 비해서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2.38배 더 높았다.

- 1) 로짓계수(Log Odds)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대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의 비율(Odds)에 로그(log)를 취한 값으로 표시된다.
- 2) Odds비는 계수의 지수값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보다 용이하게 해석할 수 있다(Allison, 1997). 본 연구에서도 자녀와 별거할 확률 대 동거할 확률을 Odds비를 사용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 3) 엄밀히 하자면, 자녀와 별거할 Odds라고 해야하지만, 해석의 편의상 'Odds'를 이하 '확률'이라고 해석하겠다.
- 4) 계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Odds비가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준거범주를 바꾸어 해석하는 것이 용이하다. 참고적으로, 바쁜 준거범주의 Odds비를 계산하는 식은 '1/원래 준거범주의 Odds비'이다(이 경우에는 1/0.74=1.35).

〈표 2〉 거주지역, 경제적·신체적 자립능력 및 노후 부양가치관이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미치는 영향

(N=2464)

	변 인	로짓계수(S.E.)	Odds비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		
	남자	-0.13(0.13)	0.88
	연령	0.01(0.01)	1.01
거주지역 자립 능력	결혼상태		
	배우자와 동거	0.53(0.12)***	1.70
	교육수준	0.04(0.06)	1.05
	아들있음	-0.89(0.27)**	0.42
	시부	-0.31(0.10)**	0.74
	경제적 능력		
	총소득	-0.00(0.00)	1.00
	주관적 경제수준	0.23(0.05)***	1.26
	주택/부동산소유	0.55(0.13)***	1.73
	근로소득 있음	1.37(0.12)***	3.93
재산소득 있음	0.51(0.15)***	1.67	
기타보조 있음	1.02(0.20)***	2.76	
비동거자녀보조 있음	0.79(0.11)***	2.20	
부양가치관	신체적 능력		
	일상생활 활동능력	-0.03(0.02)	0.97
	노부모 부양책임		
상 수	아들	-0.90(0.16)***	0.41
	자녀	-1.40(0.17)***	0.25
		-0.56(0.81)	-

-2 Log Likelihood(Intercept) = 3145.34

-2 Log Likelihood(Intercept + Covariates) = 2622.58

X² = 522.76***

df = 16

* p<.05 ** p<.01 *** p<.001

3. 노인의 부양가치관에 따른 거주지역, 경제적·신체적 자립 능력과 자녀와의 동거여부 간의 관계

노인의 노후 부양가치관에 따라 거주지역, 경제적·신체적 자립능력이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서로 다른 관계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각의 집단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노부모 부양책임이 아들에게 있다고 한 집단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총소

득과 일상생활 활동능력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을 보면 시부에 사는 노인이 군부에 사는 노인에 비해서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0.75배 더 높았는데, 이는 군부에 사는 노인이 시부에 사는 노인보다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1.33배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능력 변인들 중 총소득은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주관적 경제수준이 1점 높아질수록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1.34배

〈표 3〉 부양가치관 집단별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변인		아들(N=1364)		자녀(N=588)		노부부끼리(N=338)	
		로짓계수 (S.E.)	Odds비	로짓계수 (S.E.)	Odds비	로짓계수 (S.E.)	Odds비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						
	남자	0.14(0.17)	1.15	-0.37(0.24)	0.69	-0.78(0.39)*	0.46
	연령	-0.00(0.01)	1.00	0.03(0.02)	1.03	0.02(0.03)	1.02
	결혼상태						
	배우자와 동거	0.55(0.16)***	1.73	0.38(0.24)	1.46	0.61(0.37)	1.83
	교육수준	-0.09(0.09)	0.91	0.30(0.10)**	1.35	-0.02(0.13)	0.98
	아들있음	-1.56(0.47)***	0.21	-0.37(0.42)	0.69	-0.39(0.62)	0.68
거주지역	시부	-0.29(0.13)*	0.75	-0.43(0.21)*	0.65	-0.41(0.34)	0.66
	자립 능력						
경제적 능력	총소득	0.00(0.00)	1.00	-0.01(0.00)	1.00	-0.00(0.00)	1.00
	주관적 경제수준	0.29(0.07)***	1.34	0.25(0.11)*	1.28	-0.05(0.16)	0.95
	주택/부동산소유	0.60(0.18)***	1.83	0.59(0.25)*	1.81	0.20(0.36)	1.22
	근로소득 있음	1.49(0.16)***	4.43	1.49(0.24)***	4.43	0.44(0.32)	1.55
	재산소득 있음	0.69(0.21)***	2.00	0.53(0.29)	1.71	-0.12(0.37)	0.89
	기타보조 있음	0.89(0.27)**	2.43	1.40(0.37)***	4.05	0.58(0.53)	1.79
	비동거자녀 보조 있음	0.97(0.15)***	2.63	0.71(0.22)**	2.04	0.33(0.31)	1.39
	신체적 능력						
일상생활 활동능력	-0.00(0.30)	1.00	-0.06(0.04)	0.94	-0.09(0.07)	0.92	
상수							
		-0.66(1.10)	-	-3.95(1.55)*	-	0.91(2.42)	-
-2 Log Likelihood(Intercept)		1877.29		806.09		362.75	
-2 Log Likelihood (Intercept + Covariates)		1536.95		685.82		349.69	
X ²		340.34***		120.271***		13.06	
df		14		14		14	

* p<.05 ** p<.01 *** p<.001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나 부동산을 소유한 노인은 소유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1.83배 높았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은 없는 노인에 비해서 4.43배, 재산소득이 있는 노인은 없는 노인에 비해서 2배 더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보조가 있는 노인은 없는 노인에 비해서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2.43배 더 높았으며, 비동거자녀보조가 있는 노인은 없는 노인에 비해서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2.6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에는 배우자와 동거

하는 노인이 동거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서 자녀와 별거할 확률은 1.73배 더 높고, 아들이 없는 노인은 아들이 있는 노인에 비해서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4.7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부모 부양책임이 자녀에게 있다고 한 집단을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총소득, 재산소득 유무, 일상생활 활동능력을 제외한 다른 모든 요인들이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재산소득 유무를 제외하고는 노부모 부양책임이 아들에게 있다고 한 첫 번째 집단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밖에 사

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와 별거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부부끼리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세 번째 집단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모든 요인이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모델 자체의 설명력이 떨어져 X^2 값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에는 성별만이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여자가 남자보다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2.1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몇 가지 견해들을 통해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 한국노인들의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문제별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동거노인과 별거노인 간에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거주지역, 경제적·신체적 자립능력 및 노후 부양가치관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요인들이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거주지역, 경제적·신체적 자립능력 및 노후 부양가치관은 총소득과 일상생활 활동능력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군부에 사는 노인이 시부에 사는 노인에 비해서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더 높았다. 이는 젊은이들의 향도이농 현상으로 농촌에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는 현상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경제적 자립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자립적 수입원이 있는 노인이 그러한 수입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노인에 비해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보조나 단체보조 등과 같이 외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사회보장제도의 발달로 노인의 경제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한다는 Ross 등(1987)의 주장과 같이 국가나 사회단체로부터 받는 생활보조나 노령수당 등의 복지적인 혜택이 이들 노인에게 자립적인 경제력으로 작용하여 자녀와 별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취약한 경제력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 자녀들로부터 외면당하여 혼자 살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국가나 단체의 보조를 받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김경혜(1998)는 한국의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상당수가 노인가구이며, 대부분 노인단독가구라는 점에서 이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있어서 독립적인 가구를 택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비동거자녀로부터 보조를 받는 노인의 경우 보조를 받지 않는 노인에 비해서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더 높은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노인 스스로 자립능력이 있어서 별거를 택한 것 이라기보다는 가치관의 차이나 자녀세대의 환경적, 개인적 이유로 인하여 노부모와의 동거를 꺼려서 동거대신에 경제적인 대안으로 일정액을 보조받으면서 자녀와 별거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녀나 사회로부터의 보조에 의한 자립적 수입원이 노인에게 양가적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총소득이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자립적 수입원과 자녀나 사회로부터의 보조에 의한 수입원은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결정짓는 프로세스가 다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총소득은 모든 수입원으로부터의 소득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 다른 프로세스를 구분하지 못하여 소득액 자체보다는 노인이 자녀로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득원의 유무가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이 자녀나 그밖에 외부로부터 받는

보조가 노인의 삶에 갖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의 신체적 능력은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전체적으로 활동능력이 좋은 편이어서 일상생활에 거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점은 한국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노인이 신체적으로 취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와의 동거여부가 결정되기보다는 부양할 배우자의 유무나 달리 부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노후 부양가치관에 있어서는 다른 노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후에 노부부끼리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이 노부모를 아들이나 자녀가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인들보다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노인들은 실제 거주형태에서도 자녀와 동거할 확률이 높고, 독립적인 가치관을 가진 노인들은 실제로도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부양가치관에 따라 거주지역, 경제적·신체적 자립능력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서로 다른 관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노부모 부양책임이 아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노인들과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이들 두 집단의 경우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비슷하게 나타난 것은, 이 두 집단의 가치관이 비교적 유사한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노인들은 아들을 매우 중요시했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은 당연히 아들이 해야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최근 아들 중시 사상이 크게 약화되면서 노부모 부양책임이 아들에게 있다는 가치관에서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있다는 가치관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부부끼리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

는 노인들은 모든 요인이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노부부끼리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양가치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작용하여 자신의 거주지역이나 경제적·신체적 자립능력과는 상관없이 자녀와의 별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독립적인 가치관을 가진 노인들의 경우와는 달리, 비교적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노인에게 거주지역이나 경제적 자립능력과 같은 요인들이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최근 노인들이 자녀와의 동거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갈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거주지역의 영향은, 노후 부양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가치를 지닌 노인들이라 하여도 자녀의 사회적 이동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자녀와 별거하여 독자적인 가구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경제적 자립능력의 영향은, 자녀와의 동거가 노인이나 그 자녀에게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노후 부양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가치를 지닌 노인들이라 하여도 독립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면 자녀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별거를 택하고, 독립할 여건이 안되는 노인들은 그러한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자녀와의 동거를 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노인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적 이유로, 또는 자녀와의 갈등이나 노인 자신의 가치관 변화로 인해 자녀와 별거하려는 태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후에 자녀와 별거하여 독립적인 주거를 가질 때 이들 노인들을 위한 사회경제적 지원, 즉 가정보건서비스, 가정봉사원 제도와 같은 재가복지사업의 확충을 비롯하여 노후 소득보장과 같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이 요구된다. 또한, 경제적으로 능력있는 노인들을 위한 실버타운이나 노인전용 주거시설에 대한 개발과 대책도 시급하다.

본 연구는 앞으로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정책적 노력과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연구와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함에 있어서 노인과 관련된 측면만을 살펴봄으로써 자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특히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노인들을 자녀와의 별거로 이끄는 자녀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대상 중 별거노인의 경우도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관이 매우 우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노인들이 자녀와 별거함으로써 겪는 갈등과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기존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부양가치관을 노부모 부양책임소재에 대한 한 문항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양가치관에 대한 신뢰성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좀더 타당하고 정확한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신(1997). 부양 및 효에 관한 노인의 가치관 연구. *한국노년학연구* 6, 51-66.
- 김경혜(1998). 노인들의 동거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8(1), 107-122.
- 김송애 · 조병은(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03-322.
- 김혜연 · 김성희(1999). 노인의 부양유형 선호와 영향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7(2), 85-97.
- 박은숙, 김숙자, 김소인, 전영자, 이평숙, 김행자, 한금선(1998). 노인의 삶의 질 예측모형 구축-건강관리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8(3), 37-61.
- 서병숙 · 이신숙(1991). 농촌 기혼 여성의 노부모 부양 의식과 부양수행도. *한국노년학* 11(2), 191-207.
- 손정구(1998). 노인의 부양기대에 관한 연구 -서울시 노인의식을 중심으로 -.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수진(1993). 성인 초기 자녀의 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교환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접근-.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찬옥 · 이연숙(1992). 노년기 주거욕구 파악을 위한 하위상황설정기준 -배우자 유무 및 건강상태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2(2), 123-137.
- 유성호(1993). 재미 한국노인과 자녀간의 별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13(2), 98-119.
- 유성호(1996). 노인과 성인자녀의 별거를 결정하는 변인: 그 이론적 탐색. *한국노년학* 16(1), 51-68.
- 이가옥 · 서미경 · 고경환 · 박중돈(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희조(1996). 도시노인의 부양실태와 부양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명희 · 조영희 · 심영 · 김대연(1997). 노인복지 측면에서 본 충청북도지역 노인단독가구의 생활환경 분석 및 개선 방안 -사회적 관계 및 가사노동실태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173-190.
- 통계청(1990, 1995). 인구주택센서스 보고.
- 통계청(1992, 1998). 한국의 사회지표.
- 한경혜(1996). 농촌단독가구 노인의 자녀관계. *한국노년학* 16(2), 21-38.
-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3). 노인생활실태 및 의식구조. *실버산업개발전략*. 서울: 흥익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5, 1989).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서울: 한국인구 보건원.
- 한은주 · 최배영(1997).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본 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2), 373-383.
- Allison, P. D.(1997). *Logit and loglinear analysis using the SAS system*. Univ. of Pennsylvania.

- Beland, F.(1987). Living arrangement preferences among elderly people. *The Gerontologist* 27(6), 797-803.
- Holden, K. C.(1988). Poverty and living arrangement among older women: Are changes in economic well-being underestimated? *Journal of Gerontology* 43(1), S22-S27.
- Lee, G. R. & Dwyer, J. W.(1996). Aging parent-adult child coresidence: Further evidence on the role parental dependency. *Journal of Family Issues*.
- Ross, C., Danziger, S., & Smolensky, E.(1987). The level and trend in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1939-1979. *Demography* 24(4).
- Sarwari, A. R., Fredman, L., Langenberg, P., & Magaziner, J.(1998). Prospective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living arrangement and change in functional health status of elderly women.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47(4), 370-378.
- Wolf, D. A & Soldo, B. J.(1988). Household composition choices of older unmarried women. *Demography* 25, 387-403.